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 說法圖)



📍 주소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 전화 061-362-2727
❤ 추천 1

이용시간 정보없음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문화유산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보물 제1934호	2017.03.08	조선시대	1폭

이 작품은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설법도로 1730년 철매(哲梅)의 증명 아래 수화원(首畵員) 채인(彩仁), 진행(眞行), 즉심(卽心), 각천(覺天), 책활(策活) 등이 제작한 것이다.

이 그림을 주도한 채인과 즉심은 1723년 흥국사와 1725년 송광사 불화 제작 때 의겸(義謙)을 수화사로 모시고 함께 작업을 한 대표적인 의겸파 화원이며, 진행과 각천은 1730년 운흥사 괘불 조성 때 의겸을 도왔다.

또한 의겸을 비롯해 채인, 덕민, 지원, 각천, 책활 등은 같은 해(1730년) 공주 갑사의 '석가여래삼세불도'를 함께 제작하였을 만큼 이 들은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의 제작 의도와 달리 단독의 후불벽면에 걸기 위해 조성된 불화로서, 갑사의 그것 보다 좌우 폭이 넓어졌으나, 인물의 표현이나 구성, 묘선, 색채, 문양 등 도상이나 양식의 면에서 대체로 갑사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최고의 화승 의겸의 화풍이 그의 유파 화원들에게 어떻게 스며들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특히 적·녹색의 강한 색 대비 속에 백색, 황토, 양녹, 갈색 등 부드러운 중간 색조가 안정적으로 뒷받쳐 주고 있는 설채법, 그리고 주저 없는 유려한 필선, 중후한 이목구비를 가진 상호 등에서 1724년 송광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1725년 송광사 영산회상도 등 당대의 최고의 화승(畵僧) 의겸(義謙)의 화풍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아미타여래와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팔대보살, 그리고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며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을 갖추었고, 정취하고 유려한 필선과 중간 톤의 안정된 색감과 문양을 통하여 우수한 화격을 보여준다. 18세기 전반기 유행한 화풍과 화사간의 교류를 통한 화맥(畵脈)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본 저작물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화재검색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국가 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

-



★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 061-362-2727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 대중교통길찾기

175

목록으로

COPYRIGHT ©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gokseong.go.kr/tour>)

Web Contents

